

# LS에코에너지, 초고압 호조 타고 ‘희토류·해저사업’ 탄력

1분기 매출·영업익 두 자릿수 성장  
LS-VINA 초고압 케이블 수출 호조  
라이너스와 희토류 금속화 추진  
방산·전기차 겨냥 비중국망 강화  
베트남 해저케이블 JV 설립 가시화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LS에코에너지

LS에코에너지가 초고압 케이블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가 관련 사업 전반에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희토류 금속화와 해저케이블 사업까지 구체화되면서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공급망 재편 대응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체질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LS에코에너지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

엔가이드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2527억원, 영업이익이 171억원으로 각각 10.67%, 1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S-VINA를 중심으로 한 초고압 케이블 수출 호조가 실적 개선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초고압 중심의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와 전기동 입가공 물량 증가, 판가 반영 효과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실적 개선과 함께

희토류 사업의 전략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관련 공급망은 중국 편중이 심하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LS에코에너지는 호주 희토류 업체 라이너스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료 조달망 확보와 금속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중국 공급망 기반의 양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LS에코에너지는 연내 베트남 LSCV 공장에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우주항공과 미사일 등에 쓰이는 방산용 희토류 금속 생산을 시작하고 2027년부터는 로봇과 전기차용 금속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산 규모는 방산용

사마륨과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등을 포함해 연간 2500톤 수준이다. 이는 1만톤 이상의 영구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저케이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PTSC)와 추진 중인 해저케이블 합작법인(JV) 설립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연내 설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초고압 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본업 경쟁력이 실적을 반치고 있는 가운데 희토류와 해저케이블은 중장기 성장성을 키울 수 있는 카드”라며 “특히 희토류는 공급망 안정이 중요해진 상황이라 비중국 밸류체인 구축 여부가 향후 사업 경쟁력 확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 한화오션, AI접목·현지연계...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총공세

6월 사업자 선정 앞두고 막판 경쟁  
코히어와 손잡고 설계 혁신 추진  
현지 협력사 늘리며 공급망 확장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보고 III Batch-2 잠수함. /한화오션

오는 6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사업자 선정에 앞서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막판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협력과 현지 파트너십 확대를 잇달아 내놓으며 잠수함 성능 경쟁을 넘어 설계·운용 역량과 산업 기여를 결합한 패키지 경쟁력을 부각하고 있다.

6일 캐나다 국방 전문지 CDR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AI 기업 코히어와 함정 설계·조달 핵심 문서인 구

매주문명세서(POS)를 자동화·검증하는 개념실증(PoC)에 착수했다. 기존 선박 데이터와 설계 입력값을 기반으로 POS를 자동 생성하고 변경 사항을 반영·검증하는 방식으로, 초기에는 주기관 사양

에 적용한 뒤 향후 선체 구조와 배관, 전기·계장 분야로 확대를 검토한다.

한화오션은 앞서 지난 1월 한화시스템과 함께 코히어와 AI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생산·운용 전반에 걸친 기술 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 PoC는 해당 협력의 일환으로, 설계 영역에서 AI 적용 가능성을 구체화한 단계로 평가된다.

한화오션은 AI 협력과 함께 현지 산업 연계도 확대하고 있다. OSI마리타임시스템스, EMCS인더스트리스, 텍솔마린, 자스트랩테크놀로지스, 커티스라이트 등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오는 16일 토론토에서 ‘한화협력사 설명회(Hanwha Supplier Day)’를 열어 추가 파트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기업·대학과 30건 이상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40년까지 최소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선·철강·인공지능·항공우주분야 협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KMS도 AI와 산업 패키지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 코히어와 협력해 잠수함 운용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사결정 지원과 정보관리, 교육·훈련, 보안 인터페이스 등 운용 체계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

현지 산업 기여 확대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TKMS는 캐나다 기업 및 토착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캐

나다 항공우주 기업 마젤란과는 어뢰 생산 및 운용 지원 분야 협력에 나섰다. 캐나다 방산업체 CAE와는 CPSP를 겨냥해 함교·작전실 시뮬레이터, 소나·레이더 훈련 시스템, 전투관리 훈련 체계, 대잠전(ASW) 시뮬레이션 등 훈련·시뮬레이션 솔루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광업·배터리 등을 포함한 투자 패키지도 검토 중이며, 독일 정부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 도입 추진 역시 절충교역 전략의 일환으로 거론된다.

양측이 기술과 산업 기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캐나다의 사업 평가 구조와 맞닿아 있다. 캐나다는 산업기술혜택(ITB) 정책에 따라 수주 기업이 계약 규모에 상응하는 경제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생산·정비·운용 전반의 기술 이전과 공급망 구축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유혜은 기자 dhale@

# LG, 청년 AI 인재 94명 엑사원 경량화 도전

에이머스 해커톤 본선 열어  
누적 참가자 2만명 돌파  
채용박람회도 함께 진행



LG 에이머스(Aimers) 해커톤 참가자들 모습. /LG

LG가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AI 기술로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LG 에이머스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혁신은 인재에서 시작되고, 이들이 곧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구광모(구) LG 대표의 인재 육성 철학을 반영한 LG의 대표 청년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LG 에이머스는 2022년 하반기에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가하며, 대한민국 청년 AI 인재 교육을 선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는 LG 에이머스 8기 지원자 2339명 중 온라인 교육부터 해커톤 온라인 예선까지 통과한 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이번 주제는 LG AI연구원이 출제한 ‘엑사원(EXAONE) 경량화 모델 개발’이다.

‘거대언어모델(LLM) 경량화’는 AI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는 유지하면서도 모델의 크기는 줄이고, 추론 속도는 개선하는 최적화 기술로,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개별 기기 내부에서 AI 모델을 독립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국가대표 AI’ 엑사

원을 성능은 높이면서도 크기는 줄이는 도전 과제를 진행했고, 총 27개의 ‘경량화 엑사원’을 개발했다.

LG는 성능이 검증된 경량화 모델들은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 공개해 글로벌 개발자들이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는 모델의 성능과 코드 평가, 구두 발표를 통해 상위 수상 3개 팀에게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으며, 이들에게 L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박서희·조하영·손민주 씨가 수상했다.

LG는 대회 이튿날인 5일 LG AI연구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주요 계열사 8곳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진행했다.

이날 각 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를 공유하고, 진로 상담과 향후 채용 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LG AI 인재풀(pool) 등록을 안내했다.

또한 채용 전문 컨설턴트의 개인 맞춤형 1:1 컨설팅과 모의 AI 면접 강의 등을 제공해 청년 AI 인재들의 취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했다.

LG는 AI대학원 수준의 강의부터 채용 지원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LG 에이머스는 AI 기초 지식과 코딩 역량을 갖춘 19세에서 2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 일정을 고려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기간 연 2회 진행된다.

/원관희 기자

# 삼성·LG 차량5부제 확대 에너지 절감 기조 동참

삼성과 LG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최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나프타 수급 조정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에너지 절감 기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LG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차량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차량 5부제를 시행한 SK·현대차에 이어 4대 그룹 모두 차량 5부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삼성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8일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차량 5부제를 자율 시행하고,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LG도 이날부터 전 계열사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LG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한 지 열흘 만에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